

협동조합과 연계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중앙회, 담보여력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신용 대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에 나섰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대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신용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1984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서 운영 중이다. 최근 내수 및 수출부진 등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에로가 커지고 있으나 대출 연체를 상충을

우려하여 금융권은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담보여력이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으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0%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도가 부족한 경우는 부금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신담보(후순위 가능)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대출금리 1~2%를 지원하

고 있어 금리부담은 더욱 낮아지며 이용업체의 만족도 또한 높다.

이번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88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사(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기금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가입 및 대출상담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접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5월말 현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건설순환자원협동조합,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기안전기계공업협동조합, 충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사단법인 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

자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 30여 개의 업종별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가 공제대행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의 공제기금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조직”이라며 “공제기금이 협동조합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88-3884), 홈페이지(fund.kbiz.or.kr),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고설베드 활용 샐러드 상추 제안

농진청, 폭염·장마로 인한 수급 불안정 해소에도 도움

농촌진흥청은 딸기 재배가 끝난 여름철(휴경기) 비어 있는 고설베드를 활용해 샐러드 상추를 재배할 것을 제언했다.

샐러드 상추는 생으로 먹기 좋고 포기째 수확하는 유립계 상추를 말한다. 다양한 맛과 색, 식감을 지녀 최근 수요가 늘고 있다.

고설베드에서 샐러드 상추를 재배하면, 서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밭에서 작업할 때보다 야주심기와 수확하기가 수월하다.

특히 포기째 수확하는 샐러드 상추 특성상 한 장씩 수확하는 잎상추보다 노동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6월~7월 고온기와 집중호우 기간, 딸기 고설베드와 배지, 딸기 재배 뒤 남은 양액을 사용해 샐러드 상추를 시험 재배했다.

그 결과, 딸기 전용 혼합 상토 바이오차, 바이오차·코이어 혼합배지(7:3, 5:5) 등 4종의 배지 모두에서 샐러드 상추의 생육과 수확량이 양호했다.

배지는 수경재배 시 작물이 뿌리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매개체로, 양면 코이어 상토, 펄라이트 등을 사용한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딸기

전용 혼합 상토에서 4주간 재배했을 때 바터비야 상추의 포기당 무게는 123.3g, 버터헤드 상추는 84.7g으로 나타나 고온기임에도 수확량과 숙익 차옴이 안정적이었다.

바터비야와 버터헤드는 대표적인 샐러드 상추 종류로 바터비야는 크기가 좀 작고 구가 비교적 단단하지 않으며, 버터헤드는 잎이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형태를 띤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고온으로 상추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은 오르는 수급 불안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체 상추 재배 면적(3804ha)의 약 80%는 시설 재배지만, 시설 중에서도 토경(흙)과 저설베드 재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고온기 때 토경(흙)보다 유리한 고설베드 환경에 맞춰, 알맞은 품목을 조사해 여름철 상추 수급 안정과 농가 부가 소득 창출 방안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다만, 고설베드를 활용해 샐러드 상추를 재배할 때는 딸기에 시들음병 등 토양전염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열, 토양 훈증제(소독제) 등으로 상토를 꼼꼼히 소독해야 한다.

/오상근기자

한전 전북본부, ESG 자문회의 개최... 적기건설 등 현안 논의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최근 외부전문가(언론인, 대학교수, 환경단체, 변호사)들로 구성된 ESG 경영혁신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전력산업의 주요 이슈와 본부 현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국가기관 전력망의 적기 건설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한전 전북본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객관적 시각과 함께,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와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전북 계통운영 현황 및 전력망 건설 필요성, △전북 전력망 건설 현황 및 향후 계획, △전력산업 관련 주요 현안 △태양에너지 출력제어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전북지역 내 전력수급 안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반이 되는 전력망 적기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연원섭 본부장은 “올해 한전 전북본부의 경영 슬로건인 ‘안전 On!, 소통 Up!, Move On!’ 전북 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변화하며 혁신하는 ESG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한걸음 더 가까이 상생하는 한전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마트킹과 함께 전북 쌀 판매확대 나서

이지바이 봉담점 개점기념 아침밥 먹기 운동·전북 쌀 우수성 홍보

전북농협은 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마트킹과 함께 최근 이지바이(easylife) 봉담점에서 전북 쌀 판매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농협과 김제쌀조공, 마트킹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지바이 봉담점 개점을 축하하고, 수도권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쌀(500g) 2,000여개를 나눠주는 등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과 전북 쌀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김제쌀조공이 공급하는 제품(제품명

‘쌀쌀맛다’)은 신동진 단일품종으로 전북이 주산지, 알이 굵고 수분함량이 낮아 윤기가 나며 찰진 식감이 뛰어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쌀로서 수도권으로의 판로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2019년 1월 마트킹과의 거래를 시작, 현재까지 6,300여톤(148억 상당)을 공급하였다.

또한 이지바이 봉담점은 마트킹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지바이(easylife)라는 참고형 매장과 대형마트의 장점을 결합한 1,600평 규모의 소형 공간으로써, 수도권에서 전북 쌀의 판매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호 조합장은 “이번 마트킹 이지바이 봉담점 개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2019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 김제쌀조공의 쌀을 애용해 주신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전북현대모터스 FC와 함께 하는 ‘JB파트너데이’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날 3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전북현대모터스 FC 홈경기에서 ‘JB파트너데이’를 성료했다.

울산HD와 ‘현대기아비전’으로 경기전부터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축구팬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축구는 전북현대’.

은행은 전북은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JB파트너 데이는 도민과 전북은행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이날 JB파트너 데이는 경기에 앞



서 공식 파트너십 업무제휴와 ESG경영실천 협약식,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과 정원호 노조위원장의 선수단 격려 및 시축,

전북은행 우수고객 및 임직원들의 자녀 22명이 에스코트 키즈로 참여했으며 1천여 명의 우수고객 및 임직원들이 응원단으로 함께 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을 대상으로 전북은행 속뱅크, 브라보 코리아 사업 등을 홍보하고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진행으로 경기장을 찾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전북현대모터스 FC 선수들의 실착 및 사인 유니폼을 경품으로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 데이터 공유 업무협약 체결

한전·전력거래소 등 참여... 민간분야 신사업 창출도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와 에너지데이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산업구역 공동 활용을 포함해 △에너지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인프라 구축 △협업 데이터 생산 △데이터 품질 향상·표준화 △데이터 분석역량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점검 등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보안이 확보된 데이터산업구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기술교류 등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 분야 데이터를 포함한 융복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업체의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공공



기관 간 실질적인 데이터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데이터산업구역을 통해 제공될 전기안전 데이터는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같은 공공데이터가 산업발전과 안전 확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지원 하는 디지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